

## 독일어 명사의 복수체계\*

김태성(부산대)

### 1. 서론

독일어 명사의 복수를 만드는 방법은 꽤 복잡하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많은 문법서의 복수체계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독일어의 복수형은 심지어 자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독일어의 복수형에는 체계적인 성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복수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독일어의 복수체계는 분명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독일어의 복수접미사는 복수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문법적인 성과 굴절부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사의 굴절부류와 결부된 복수의 유형을 서술하는 데에는 명사의 ‘자질’과, 다른 한편으로 ‘유표 Markiertheit’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복수의 유형에 대한 분류의 예를 제시하고, 이어서 유표의 복수유형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독일어의 복수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복수형태는 학습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베게너 Wegener(1995a)가 제시한 일반화된 규칙들을 설명의 모델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확정된 규칙들을 가지고서 복수형을 기술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경합되는 형태가 상당 수 있다는 사실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베게너(Wegener 1999)와 분달리히 Wunderlich(1999a)에 기대어, 독일어의 복수체계는 제약조건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최적성이론 Optimalitätstheorie의 바탕 위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낱말의 형태는 보편적인 제약 아래 놓여 있으며, 이 제약은 원칙적으로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정된다. 최적성이론에 의한 연구에 있어서는 제약의 개념을 가지고서 가능한 형태들을 검토하여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어 복수형태의 표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4년 과제: 1999-2003)에 의한 연구임.

준값 Default으로 가정되고 있는 -s 복수의 위상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2. 명사의 굴절부류와 복수유형

### 2.1. 명사의 굴절부류

독일어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에서 명사의 어형변화를 보면, 원래 격과 수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던 격 형태 어미의 기능은 음운법칙에 따라 부분적으로 '쇠퇴'하고, 수를 표시하는 형태소의 수단은 점점 '부각'된다. 독일어 명사굴절의 방식을 보면, 격의 형태는 동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복수형태는 통일적으로 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눈에 띈다. 격의 기능을 떠맡게 된 관사도 단수와 복수에서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수형은 뚜렷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독일어 명사의 복수형태소는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sup>1)</sup>:  $-(e)$ ,  $-(e)n$ ,  $-”(e)$ ,  $-”er$ ,  $-s$ . 복수형태소  $-\emptyset$ 와  $-e$  (그리고  $-n$ 과  $-en$ )는 상보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e$ 는 약음을 갖는 음절에 뒤따르면 삭제된다.<sup>2)</sup>

어떠한 명사가 어느 굴절부류에 속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명사의 문법적인 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복수형을 파악하는 데는 이처럼 명사의 성이 중요하다. 명사에 있어서 범주화의 위계는 성 > 수 > 격의 순서이기도 하다.<sup>3)</sup> 복수형과 관련되는 주요 굴절유형은 복수(주격)의 형태와 단수·속격에서 나온다: 강변화와 혼합변화에서의 단수·속격의 두드러진 형태인  $-(e)s$ ( $-ens$ 를 포함하여), 약변화 남성명사의  $-(e)n$ , 여성명사의  $-\emptyset$ .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의 강변화 방식의 굴절은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복수형태는 우선 '여성명사'와 '비여성명

- 
- 1)  $-\emptyset$  복수는  $-e$  복수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으며,  $-er$ 의 복수형태는 언제나 변음이 되기 때문이다.
  - 2) 두 번째의 /a/는 /a/에 잇따라 올 경우에는 (자음으로 분리되든 되지 않든) 언제나 삭제된다: \*Vögele, \*Jackeen. vgl. Wegener 1995b: 187.
  - 3) 성은 본래의 낱말(이나 파생접미사)에 고유한 것이며, 낱말의 기본형에 복수, 그 다음에 격의 표지가 따른다. 예: Kind+er+n, Lehr+ling+e+n vgl. Eisenberg 1998: 159.

사'의 두 부류로 나누면 된다. 약변화 남성명사는 단수·속격과 복수에서  $-(e)n$ 의 규칙적인 복수형태를 보인다(약변화 남성명사의 변화에 있어서는 단수·속격의 형태로부터 단수·여격과 대격의 형태도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독일어에 있어서 복수형에는 세 가지의 굴절부류를 가정할 수 있다: 여성명사; 약변화 남성명사; 강변화 남성·중성명사.

복수형태는 굴절부류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굴절부류와 복수형태 사이에는 '함축적인' 관계가 있다(Wegener 1999: 6). 굴절부류에 있어서  $-er$ 와  $-\emptyset$  유형의 복수는 강변화 남성·중성명사에만 나온다(단, *Mütter, Töchter*는 제외).

$-(e)$  복수를 취하는 명사는 규칙적인 비여성명사이고,  $-(e)n$  복수를 취하는 명사는 규칙적인 여성명사이다. 그 나머지의 여성명사는 간모음이 동시에 변음하는  $-e$  복수형이 된다. 무려 96,6%의 여성명사가  $-(e)n$  복수유형이므로(s. Pavlov 1995: 46) 독일어에 있어서 여성명사의 복수체계는 견고하다고 하겠다. 하위유형으로서의 '강화된' 형태인  $-”(e)$  복수는 남성명사에 많이 나오며, 하위유형인  $-”er$  복수는 중성명사에 많이 나온다. 이로써 굴절유형과 (명사의) 성의 밀접한 관계는 확인된다(vgl. Wiese 2000: 149).

여성명사에서의 '유표'의 복수표지인  $-e$ 는 남성명사에서는 무표의 복수표지이며, 남성명사에서의 유표의 복수표지인  $-(e)n$ 은 여성명사에 있어서는 무표의 복수표지다. 이리하여 여성명사와 남성명사 사이에 '계열적인'(교차적인) 관계를 아래의 '도표 1'에서 볼 수 있다.

	여성명사	남성명사	중성명사
무표의 유형	$\emptyset / n$	$s / e$	$s / e$
유표의 유형	$\emptyset / ”e$	$n / n$	$s / ”r$
$-s$ 접사	$\emptyset / s$	$s / s$	$s / s$

도표 1: vgl. Eisenberg (1998/2000: 162)

2.2. 복수유형

명사의 복수유형에 관하여 분덜리히(Wunderlich 1999a)는 명사의 음률적인 특성과 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유형을 아홉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거기에 두 개의 하위부류가 더 추가된다). 이 부류들은 서로 위계적인 관계에 있다. -s, -e, -Ø, -n(-e로 끝나는 여성명사의 부류와 -e로 끝나는 약변화 남성명사의 부류)의 복수형은 규칙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며, (-e로 끝나지 않는 명사의) -n 복수와 -r 복수의 네 부류는 불규칙적인 것으로, 어휘상으로 고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분덜리히에 따르면, -e와 -Ø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접미사가 아니라 음률적인 조건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s와 -n, -r이 복수접미사로 가정된다.

아래의 '도표 2'는 원래 분덜리히가 복수형의 부류의 위계적인 관계를 간단히 제시한 것을 존넨슈틀 해닝 Sonnenstuhl-Henning이 다시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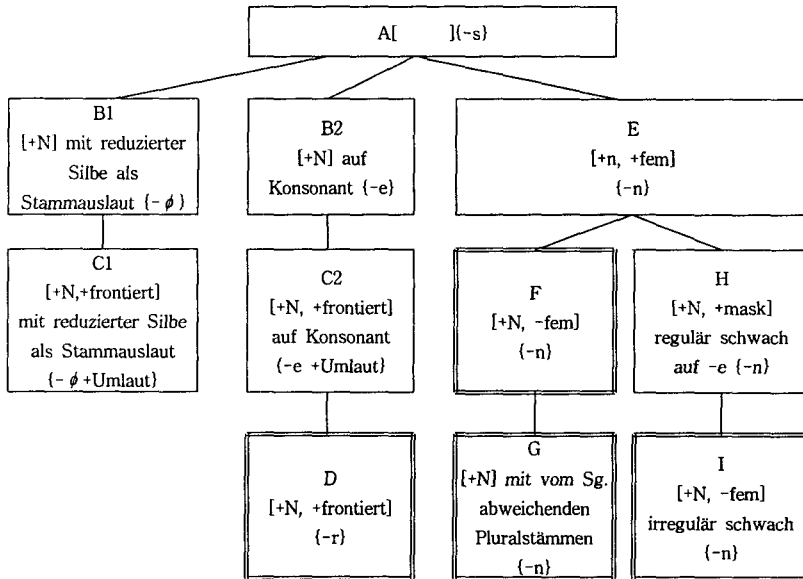


도표 2: vgl. Sonnenstuhl-Henning (2003: 91), Wunderlich (1999a: 2)

분달리히의 분석에서 어휘에 대한 정보는 하위세분화의 원리에 따라 위계적인 상속의 수형도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위계상으로 하위에 있는 교점은 자동적으로 상위교점의 자질을 물려받는다. 하지만 명사의 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상속 수형도의 맨 위의 교점에 있는 A 부류는 '전형적인 명사'가 아니다. 이 유형은 -s로 끝나는 명사다. 이 부류의 복수형은 어휘상으로 명사[+N(ominal)]라는 자질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에도 놓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부류는 이 부류에 있어서 일반적인 표준값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A 부류의 하위부류인 B 부류는 모두 비여성명사[-fem]로서 '전형적인 명사'에 든다.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의 복수형태는 그 음절이 약음어나 공명음의 "축약된 음절"<sup>4)</sup>로 끝난다는 음절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 어간이 이미 축약된 음절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태는 더 이상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곧 B1은 -∅ 유형이다: *Enkel, Kissen, Lager*.

B2는 -e 유형으로서 그 어간이 형태상으로 명사의 적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위하여 복수표지로 약음을 취한다: *Arme, Schafe, Rehe, Schicksale*.

C 부류의 명사는 B 부류에 속하는 명사의 자질을 물려받으며, 그 간모음의 어휘상의 가변적인 자질('전설음으로의 전화' [+frontiert])로 인해 변음됨으로써 B 부류와 구별된다. B 부류는 남성명사와 중성명사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C 부류는 모든 성의 명사를 다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C1은 (B1의 변음하는) -∅ 유형이다: *Läden, Brüder, Mütter*.

C2는 (B2의 변음하는) -e 유형이다: *Hüte, Flöhe, Kühe, Kräfte, Flöbe*.

분달리히에 있어서 -er 접미사를 갖는 불규칙적인 복수형태의 부류 D (*Häuser, Bücher, Kinder*)는 C2 부류의 하위부류로 배열되어 있으며, '불규칙적인' 복수형으로 간주되는 점이 특이하다. 그것은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의

4) 아래의 인용문을 참조할 것:

"All plural forms of typical nouns have a final syllable whose rhyme is reduced to either schwa or a syllabic sonorant (r, l, or n), hence, they end in a 'reduced syllable' which can not be stressed (Neef 1998). In other words, the final syllable of plurals is associated with a mora that lacks any vocalic features but is restricted to [+son]." (Wunderlich 1999a: 3)

간모음이 역시 가변적인 자질[+frontiert]에 따라 변음하기 때문일 것이다. 간모음이 변음이 될 수 있으면, 언제나 변음을 일으키는 특성은 접미사 *-er* 자체에 있다.<sup>5)</sup>

E 부류는 A 부류의 직접적인 하위부류이며, 변음하지 않는 여성명사[+fem]로서 복수에 규칙적으로 언제나 /n/이 붙여진다: *Taschen, Seiten, Tanten, Türen*. 이와 같은 E 부류는 C 부류의 변음하는 여성명사에 대해 상보적이다. 변음하는 여성명사에는 *-n*이 붙여지는 경우가 없으므로, 변음을 하는 제약이 *-n* 복수가 되는 제약보다 우위에 놓인다고 분달리히는 가정한다(vgl. Wunderlich 1999a: 5).

F는 복수가 /n/이 되는 여성명사가 아닌 [-fem] 명사의 (소위 혼합변화를 하는) 부류다. 이 /n/은 어휘상으로 분화된다. *-e*로 끝나는 몇몇 중성명사 (*Augen, Enden, Interessen, Betten, Ohren, Hemden, Leiden*)와 남성명사 (*Buchstaben, Funken*)와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의 남성명사가 여기에 든다: *Motoren, Professoren, Muskeln, Strahlen, Flecken, Seen, Pfauen, Masten*.

G는 단수형과 ‘어간’이 다른 ‘불규칙적인’ 복수형태를 갖는 명사의 부류다. 그 하위부류로서 G1: *Album - Alben, Datum - Daten, Virus - Viren, Rhythmus - Rhythmen*; G2: *Bau - Bauten, Atlas - Atlanten, Kaktus - Kakten, Embryo - Embryonen*.

H는 E의 하위부류로서 ‘규칙적인’ 약변화 명사의 부류다. 이 부류에 드는 명사는 남성명사[+mask]이며, *-e*로 끝난다: *Hasen, Falken, Russen*.

약음 /ə/로 끝나는 남성명사의 부류는 단수에서나 복수에서 특별한 영역이다. 이 부류는 ‘생명체’라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분달리히는 복수를 *-n*으로 나타내는 여성명사가 아닌 명사를 위와 같이 F, H, I의 서로 다른 굴절부류로 세분하고 있다. 부류 F에는 혼합변화를 하는 명사가 모여 있는 반면에, 약음으로 끝나는 H 부류는 *-e*로 끝나는 ‘규칙적인’ 약변화 명사의 집단이다.

부류 I는 ‘불규칙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약변화 명사의 부류다. 베게너 Wegener(1995: 27)와는 달리 분달리히는 *Mensch*와 같은 명사를 여기에 넣고

5) 축소어미 *-chen, -lein*도 일률적으로 변음을 일으킨다.

있다. 여기에 속하는 명사는 거의 다 남성명사로서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이나 동물이다: *Bären, Bauern*. 특이한 어형변화를 보이는 *Herr*와 중성명사 *Herz*도 이 부류에 넣고 있다.

분달리히의 명사의 복수체계의 도식에 있어서 교점과 하위교점 사이에 위계적인 관계는 잘 파악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분기 사이의 비중에 따른 우위는 잘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형적인’ 명사와 ‘비전형적인’ 명사로 구분한 것도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전형적인 명사도 복수에 *-s*를 취할뿐더러, 비전형적인 명사의 복수도 (*-s* 대신에) *-e*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2.3. ‘유표’의 복수유형

이 자리에 독일어의 복수체계에 있어서 ‘유표’의 복수 유형에 속하는 *-e*, *-er*, 그리고 약변화 명사 세 가지 복수유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2.3.1. 변음복수

변음복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변음은 어간의 특성으로 간주되지만 복수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변음은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여성명사의 *-e* 복수형은 변음되는 모음이 있는 명사에 국한되어 있다. 남성명사에 변음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규칙을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짝을 이루는 남성명사 *Aal*과 *Saal*을 예로 들어보면, 말음 /l/ 음의 환경은 동일하지만, *Saal*은 복수형이 변음하는 반면에, *Aal*은 변음하지 않는다. 음운상의 환경으로써는 복수형이 *Aale*인지 *Säle*인지를 미리 말할 수 없는 것이다(vgl. Russ 1989: 59). 강변화 남성명사의 *-Ø* 복수유형에 변음이 일어나는 경우도 어휘상으로 정해져 있다: *Graben - Gräben*.

그러기에 복수형에서 변음은 어떠한 기능을 갖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여성명사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명사의 단수형태가 *-e*로 끝나므로 *-e*는 복수표지로서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런데다가 여성명사는 정관사의 형태가 단수와 복수에서 (여격을 제외하고서는) 같기 때문에 *Wand - Wände*에서처럼 복수형이 뚜렷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명사는 언제나 변음한다는 사실은,

독일어의 복수형태는 그 단수형태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체계적합성의 원리로부터 설명된다. 복수의 어미가 없는 *Mutter, Tochter*의 경우에도 복수는 변음으로 표시된다.<sup>6)</sup>

이에 반하여 복수표지  $-(e)n$ 과  $-s$ 에는 변음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e)n$ 은  $-e$ 보다 보다 나은 부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 는 음운상으로는 식별이 잘 되는 접미사이므로, 변음은  $-(e)n$ 에서나  $-s$ 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변음은 오늘날 독일 남부 지방의 방언에서 단수와 복수형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Wägen*과 같은 변이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변음은 표준어에 있어서도  $-\emptyset$  복수를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통계의 수치를 비교하여 보면(s. Wegener 1999: 19) 오늘날의 독일어에 있어서  $-\emptyset$  복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복수표지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변음은 표준어에 있어서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는 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구현 Token 빈도가 높은 변음의 보다 중요한 기능은 여성명사에서 ‘약음’의 복수 접미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말음  $-e$ 의 탈락 현상 Apokope과도 관련이 있다. 독일 남부 지방에서는 말음의  $-e$ 가 흔히 분명히 발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음이 유일한 복수표지가 되는 셈이다.

요컨대 변음의 잇점은 높은 강도의 표시(“Signalstärke”, “cue strength”)에 있다고 하겠다(Köpcke 1988: 305). 비이제 Wiese(2000: 148f.)는  $-(e)$  복수와  $-er$  복수는 보다 분명한, ‘강화된’ 복수표지라는 점에서 단순한 방식을 따르는 유형과 구별되며, 변이형으로서의  $-(e)$  복수는 원칙적으로 남성명사의 강화된 복수형이고,  $-er$  복수는 원칙적으로 중성명사의 강화된 복수유형으로 본다. 변음된  $-er$  복수형은 접미사와 변음을 함께 나타내므로 다른 복수형보다 그 단수형과는 더 분명하게 구분된다.  $-er$  복수형은 발음이 불명확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발음된다. 명확성의 정도는 변음된  $-er$  복수형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겠다.

6) *Mutter, Tochter*의 복수형은 운이 유사한 *Brüder, Väter*의 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유사성의 원리 Ähnlichkeitsprinzip’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vgl. Becker 1994: S. 55.



변음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로는 낱말의 형태는 형태론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 말하자면 낱말의 의미와 음운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한 쾨케 Köpcke(1994: 81ff.)를 들 수 있다. 생명체를 지칭하는 명사의 복수형이 변음('변음 + e')되는 데에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이 그 바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sup>7)</sup> 변음은 주로 사람과 동물의 신체 부위의 명칭에는 나타나지만, 식물의 부분 명칭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vgl. Köpcke 1994: 84).<sup>8)</sup>

한편으로 쾨케는 단음절의 남성명사에 있어서 낱말의 앞자리(단어의 간모음 앞의)가 자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 복수형은 변음이 될 개연성이 더 크다는 일종의 음운론상의 도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간모음 뒤의 낱말의 끝자리가 자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있을수록 복수형에 변음이 될 개연성은 크다는 것이다. 위의 두 경우에 대한 예는 *Strumpf*와 같은 낱말이 될 것이다.

### 2.3.2. -er 유형

-er 유형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래 -er는 격어미가 아니다. -er로 끝나는 복수는 변음할 수 있는 간모음에 변음을 일으키는 고고지독일어의 어간을 형성하는 접미사 -ir로 거슬러 올라간다. -ir는 그 이전의 시기에는 복수에서 뿐만 아니라 단수의 속격·여격에도 있었다. 낱말 *lamb*은 단수 속격·여격에서 각기 *lambires*, *lambire*의 형태를 보였다(vgl. Becker 1994: 46). 이 단수형태는 주격과 대격에 동화되어 -ir가 없어졌다. 복수형에는 이 동화가 일어나지 않고 -ir가 남아 있게 되어(vgl. Paul 1968: 23f.), 단수와 복수가 구별된 것이다: *lamb* vs. *lambir*. 변음과 말음 -ir는 복수표지로 다시 해석된 것이다.

7) 생명체를 나타내는 단음절의 명사는 동물계를 거쳐 식물계로 나아갈수록 변음되는 비율은 점차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음되는 예: *Gast, Sohn, Arzt, Koch, Papst, Propst, Abt, Rat, Stamm, Vogt, Chor: Wolf, Hahn, Bock, Gaul, Fuchs, Mops*. 이들 가운데 다수가 고고지독일어에서는 변음이 되지 않았었는데 중세독일어 시기에 와서 변음이 되었다. vgl. Köpcke 1994: 83f.

8) 예컨대 *Kopf, Bauch, Fuß, Hals, Zahn, Darm, Rumpf, Arsch, Schoß, Schopf, Zopf, Bart: Schwanz, Balg, Fang, Kropf, Schlund, Bug*. 물론 *Arm, Spann, Huf*와 같은 예외도 있다. 한편 식물 명칭에서는 *Ast, Stamm, Stumpf*의 예도 있지만, -e만 붙여서 복수를 만드는 예가 더 많다: *Strunk, Dorn, Halm, Sproß, Bast, Flor, Kork*.

이처럼 *-er* 복수는 독어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래 되지 않았다. 중세독일어의 굴절부류의 접미사가 쇠퇴한 후, 복수형태가 식별될 수 없게 되자 *-er* 복수가 생기게 되었다. 고고지독일어에서 얼마 되지 않는 라틴어의 *genus -generis* 방식으로 굴절하는 중성명사 가운데 집합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동물 명칭들이 복수의 성격에 가깝게 되어, 여기에서부터 18세기말까지 *-er* 복수형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sup>9)</sup> *Lämmner, Kälber, Hühner, Rinder*.

독일어의 전체적인 체계에 있어서 *-er* 복수는 ‘유형’ 빈도는 낮다.<sup>10)</sup> 그러나 기본어에서 높은 ‘구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er* 복수의 유형에 대한 구현의 비율은 1:8에 이르고 있다(vgl. Pavlov 1995: 45ff.) 베게너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Ø* 복수가 가장 쉽게 습득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가 *-er* 복수형이다(vgl. Wegener 1995b: 202). *-er* 복수형은 사실상 생활 주변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낱말에 잘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흔히 쓰는 낱말들은 전체로 저장이 되며, 그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er* 복수는 독일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이 그 유형을 익히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er* 복수형의 구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 2.3.3. 약변화 (남성)명사

약변화 (남성)명사는 형용사 약변화의 굴절방식을 따르고 있다. 어미 *-(e)n*은 *-s*보다 강하게 음조와 결부되어 있다. *-(e)n*은 뚜렷이 음절로 나뉘며, 복수의 강약격에 부합된다. *-(e)n*은 원래 약변화 여성명사의 어미였으나, ‘(고등)생명체’라는 의미자질을 나타내는 ‘남성명사’에 전형적인 것이 되었다: *Bube, Geselle, Kunde, Erbe, Held, Fürst, Graf, Prinz, Narr, Christ*. 특히 어미가

9) 특히 독일의 남부 지역에서 흔히 어미의 탈락현상 때문에 *-e* 복수형태 대신에 *-er* 복수가 쓰이고 있다: *Beiner, Hemder, Rösser*. 남성명사도 있다: *Äster, Bächer, Bäumer, Münder, Steiner, Hälmer, Türmer*. 이렇게 보면 *-er* 복수는 그 대안으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gl. Wegener 1999: 16.

10) *-er*의 복수유형은 *-s* 복수(4.1%)와 거의 같은 4.2%의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vgl. Sonnenstuhl-Hennig 2003: 83.

-and, -ant, -at, -ent, -at, -ot, -ist, -nom, -loge로 끝나는 외래어에서 많이 넘어왔다. 근대독일어에서 약변화 명사가 특정한 영역에서 그나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약변화 명사의 의미자질을 가진 많은 프랑스어 명사(예: fnhd. *Artiste*)가 차용된 까닭이다(vgl. Becker 1994: 60). 약변화 명사에는 ‘(고등)생명체’라는 의미자질에다 ‘다음질’과 ‘어말음 강세’라는 의미자질이 부가되어 다른 부류에 대해 변별력을 갖게 되었다.

약변화 명사는 근대독일어 시기에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vgl. Becker 1994: 59). 약변화 명사의 쇠퇴는 남성명사에 있었던 두 가지 과정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부류에 특징적인 단수·주격의 -e가 탈락되거나, -(e)n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강변화 남성명사의 방식을 따르게 되었던 반면에, 한편으로는 -(e)n으로 끝나는 복수형과 연관되어 여성명사로 전환되었다.<sup>11)</sup> -e로 끝나는 동물 명사는 성을 바꾸게 되었지만(*Grille, Heuschrecke, Schlange, Schnecke* 등), 성이 바뀌지 않은 명사는 *Affe, Falke, Löwe, Rabe* 등이다.

그러나 명사의 단수·주격의 형태가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는 전자의 방식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특히 사람이나 고등동물을 지칭하는 경우에 그러하였다. 바로 이 부류에 두 번째의 방식(성의 전환)은 배제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주로 복수가 사용된다거나 성의 귀속이 불확실해지는 일은 없었다. 고등동물은 흔히 단수로 사용되며, 주격은 행위자의 역할을 하는 생명체인 명사에 아주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명사는) 주격이 -n으로 끝나는 방식의 역성어 Rückbildung(예: *Balken, Bissen, Bogen, Braten, Fetzen, Flecken, Garten, Graben* 등)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부류에 특징적인 단수·주격에 -e로 끝나는 몇몇 남성명사에는 단수·속격에 비여성명사의 강변화의 굴절에 전형적인 속격 -s(예: *Namens*)가 붙는다. 형용사(약변화) 방식의 굴절에서 명사 방식(강변화)의 굴절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유형이라고 하겠다(vgl. Wiese 1994: 144).

사격 斜格으로부터 만들어진 기본형태로서의 역성어는 예외가 아니라, 명사 굴절에 있어서도 종종 체계적인 형태론상의 변천에 있어서 새로운 체계가 형

11) 규칙적인 약변화 남성명사의 복수로 굴절부류가 전환된 예로는 *Bayer, Pommer, Bauer* (-e) > -n)를 들 수 있다. 옛날의 속격의 형태로는 *Bauersfrau*의 예가 있다. vgl. Wegener 1999: 21.

성되는 원인으로 간주된다. 약변화 방식의 굴절이 쇠퇴되면서 무생물 명사에 있어서 우선 *-ens*로 끝나는 단수·주격은 강변화 명사의 본에 따라 여격/대격의 *-en*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이 *-en*은 어간의 부분으로 다시 분석되어 단수·주격에 전이되었다.<sup>12)</sup> 이리하여 *Wagen, Boden*의 예에서처럼 통일적인 단수 어간 *Frieden, Funken* 등이 있게 된 것이다(vgl. Becker 1994: 50). 부르젤 Wurzel(1985)은 *Funke*에서 *Funken*으로의 형태론상의 변화는 우연한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합성'의 원리에 따라 당연히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낱말은 다른 낱말과의 관계를 통하여 형태론상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근대표준독일어의 복수형태인 *Fersen*에는 접미사가 붙여져 있는 것으로 본다. 단수가 *Ferse*이기 때문이다. 중고지독일어 *versen*에는 접미사가 없다고 본다. 단수는 *versen*이기 때문이다. 근대독일어의 *Fersen*은 *Ferse*와의 관계를 통하여 접미사를 갖는 것이다. 이 예에서 *-e*로 끝나는 여성 단수·주격의 체계적인 역성 과정을 볼 수 있다:<sup>13)</sup>

*versen/versen* > *Ferse/Fersen* (vgl. Becker 1994: 46).

*-s* 복수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제 독일어의 복수체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2) 중세 후기까지 많은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는 복수표지 *-n*을 사격 斜格으로부터 단수·주격으로 채택했다. 특히 방언의 형태에서 그러하였다. vgl. Paul 1969: 38, 87.

예: 남성: *Balken, Bogen, Fetzen Kasten, Kragen* 등

여성: *Kirche(n), Sonne(n) Wunde(n), Feder(n)* 등

13) 역사적으로 보면 *-n*으로 끝나는 많은 여성명사는 음운탈락 현상으로 생겼으나, 끝의 *-n*은 근대독일어의 시기에 와서 일시에 떨어져 나갔다.

예: *ahd. ketina* > *mhd. ketin* > *mhd.후기/fnhd. ketten* > *nhd. Kette*

근대초기독일어의 시점에는 단수·주격이 복수형과 동일하게 되었다. 어간의 끝 *-(e)n*은 다시 복수표지로 해석되었다. 그리하여 *die Erde - die Erden*의 방식을 따르는 단수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어, 단수와 복수가 분명히 구분되었다. 여기에 대응되는 중성명사(예: *Becken, Kissen*)는 관사(중성)의 표지로 인해 복수형과 일치되지 않아, 어간의 끝 *-(e)n*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vgl. Paul 1968: 87f.

### 3. 규칙에 따른 복수형의 분석

복수유형의 분류로부터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이 나온다. 복수체계에 대한 규칙을 세운 학자 가운데 아옥스트 Augst(1979: 22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남성명사와 중성명사는 *-e*를 붙여 복수형을 만들고, 여성명사는 *-en*의 복수형을 취한다.
- 2) *-e*는 약음  $\alpha$ (l, r)와 *-lein*으로 끝나는 낱말에서는 탈락된다. 역시 *-en*은 *-en*으로 끝나는 낱말에서는 탈락된다(곧, /el/, /er/, /en/으로 끝나는 낱말은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에서 제로형태소(-Ø)의 복수형을 택한다).
- 3) *-e*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명사에서도 *-en*으로 복수형을 만든다.

아옥스트는 위의 2)는 “순수한 규칙은 아니”며, 위의 세 규칙으로 독일어 복수형의 약 75%를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이지만 그 규칙은 많은 예외조항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규칙 2)의 경우에 *Bauern*, *Pantoffeln*과 같은 복수형도 있기 때문이다. 아옥스트는 복수표지 *-er*와 변음을 독일어의 ‘중심적인’ 복수체제로 보지 않는다.

베게너(Wegener 1995a)는 복수체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베게너의 규칙은 문법적인 성과 ‘유표’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표’라는 중심적인 개념은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유표인 명사’[N, m]의 자질은 다음과 같은 어휘상의, 음운상의 자질을 말한다: 고유명사, 약어, 외래어, 명사화로서의 인용어, 의성어, 액센트 없는 완전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이다. 유표의 명사와는 달리, 무표의 명사의 (무표의) 복수형에 있어서는 문법적인 성이 결정적인 기준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수형을 만드는 데에는 여성명사인 경우와 여성명사가 아닌 경우로 나누면 된다. 이로써 무표의 복수형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이 나오게 된다(vgl. Wegener 1995a: 10ff.):

- 1) 무표의 여성명사는 복수표지로 *-(e)n*을 선택한다.
- 2) 무표의 남성명사와 중성명사는 복수표지로 *-(e)*를 선택한다.
- 3) 유표인 명사는 성에 관계 없이 복수표지로서 *-s*를 선택한다.

규칙 1: [N, Fem] → -(e)n 예: *Frauen, Uhren, Rosen, Ideen*.

규칙 2: [N, -Fem] → -(e) 예: *Hunde, Jahre, Messer, Eimer, Ruder, Esel, Segel, Wagen, Leiden, Knie*.

규칙 3: [N, m] → -s 예: *Omas, Jobs, Machos, Uhus, Müllers*.

위의 규칙 1)은 어간 말음으로 약음을 갖는 여성명사의 경우로서 예외 없이 지켜지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규칙 2)에 관해서 말한다면, 기본형이 원래 강세가 없는 -e, -er, -en<sup>14)</sup> 또는 -ern, eln (부정사의 명사화)으로 끝나면(예: *Gebirge, Marder, Hobel, Wagen, Wandern, Angeln*) 약음의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위 ‘-Ø 복수’를 갖는 명사를 -e 복수에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e 복수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주규칙을 따르지 않는 명사를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베게너는 예외로 인정되는 명사는 어휘목록에 그 복수 형태가 기록되거나,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복수형을 규정하는 자질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sup>15)</sup> ‘유표의 규칙적인’ 형태를 보이는 명사에 대해서는 부칙이 마련되는데, 세 가지의 경우로 구별된다(Wegener 1995a: 26ff):

첫째, 성에 따라 복수형이 결정되는 규칙 1)과 규칙 2)를 무표로 간주한다면, 성에 어긋나는 양태를 보이는 명사를 유표로 간주할 수 있다.

유표의 일반적인 경우는 명사가 “성에 어긋나는” 양태를 보일 때이다. 말하자면, 예컨대 *Uhr*와 같은 명사와는 달리, *Bär, Staat*와 같은 (남성)명사와 *Bett*와 같은 (중성)명사는 비여성명사[-Fem]이지만, -en이라는 여성의 복수형태를 취한다. 다른 한편으로 *Hand, Bank, Nuss*는 여성명사[+Fem]이지만, 여성이 아닌 명사에 예견되어 있는 -(e) 복수형태를 취한다. 이리하여 유표의 규칙적인 복수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칙이 나오게 된다:

1a) 유표의 규칙적인 여성명사는 복수표지 -(e)를 선택한다.

14) -em으로 끝나는 낱말로 *Atem*이 있으나 그 복수는 쓰이지 않는다.

15) 베게너는 *Bänke, Wölfe, Bücher, Menschen*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보지 않으며, *Atlanten, Charaktere, Numeri, Lexika*와 같은 개별적인 명사만 불규칙적인 복수형태로 간주한다.

2a) 유표의 규칙적인 남성과 중성명사는 복수표지  $-(e)n$ 을 선택한다.

1a에 대한 예: *Hände, Nöte, Mäuse, Bräute, Töchter.*

2a에 대한 예: *Bären, Vettern, Augen, Betten.*

둘째, 유표의 규칙적인 여성명사는 예외 없이 변음을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변음은 규칙적이다. 이와 반대로,  $-(e)$ 로 끝나는 그 자체 무표의 복수형 남성명사(기본어)의 약 1/3과 두 개의 중성명사(*Floß, Kloster*)는 변음되는 것이 어휘목록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세 번째의 부칙으로서 변음의 규칙이 나오게 된다.

2b) 몇몇 무표의 남성명사와 중성명사 두 개는 규칙적으로 변음을 하는 복수형을 취한다.

규칙 2b:  $[N, -Fem, +UPI] \rightarrow -(e)$

규칙 2b에 대한 예: *Wölfe, Väter, Flöße, Klöster.*

셋째, 마지막으로  $-er$  복수형태를 갖는 중성명사와 일부의 남성명사가 남는다. 이들 명사의 변음은 규칙적이다. 이 부류의 명사는 말음과 음절의 수에 따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유표의 규칙적인' 이 부분적인 부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Wegener 1995a: 28):

2c) 특정한 남성명사와 중성명사는  $-er$  형태의 복수형이 된다.

규칙 2c:  $[N, -Fem, +er-PI] \rightarrow -er$

규칙 2c에 대한 예: *Männer, Kinder, Skier, Irrtümer.*

이로써 복수형에 대한 베게너의 일곱 개의 규칙이 다 열거되었다. 베게너는 처음의 주규칙(세 가지)으로 모든 복수형태의 71,5%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베게너의 분석은 복수형은 학습할 수 있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명사의 복수형에 대한 규칙과는 다른 관점에서 흔히 학습문법서에 열거되어 있는 명사를 만드는 전형적인 파생접미사<sup>16)</sup>를 알아두는 것은 복수형

16) 예를 들어, 남성명사가 되는 접미사  $-er, -är, -eur, -ling$  등은  $-(e)$  복수형을, 여성명사가 되는 접미사  $-ung, -heit/-(ig)keit, -schaft, -(at)tion, -(at)ur, -tät, -ik, -age, -(er)ie, -(er)ei$  등은  $-(e)n$  복수형을 취한다.

의 부류를 쉽게 인지하는 지표가 된다.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복수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heit/-keit*는 *-en* 복수형이 된다고보다는 그것은 여성명사의 접미사이기 때문에 *-en* 복수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베게너는 주규칙과 부칙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복수형의 선별장치를 고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선별장치는 복수형을 생산해내는 장치로 간주된다. 복수 선별장치는 분명히 기본(표준)값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복수표지 *-(e)n*은 여성명사에 대한 기본값을, 복수표지 *-(e)*는 비여성명사에 대한 기본값을, *-s*는 마지막으로 유표의 명사에 대한 기본값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값을 따르는 무표의 명사는 올바른 복수형의 선별장치의 출구를 바로 빠져나가며, 유표의 복수 명사형은 장애에 부딪힌다. 어휘목록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기본값이 선택될 수 있다.

분덜리히는 앞의 2.2에서 보인 복수유형에 관한 분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규칙을 열거하고 있다(vgl. Wunderlich 1999a: 7f.):

- i) 약음으로 끝나는 남성명사는 약변화한다.
- ii) 변음하지 않는 여성명사의 복수는 *-n*으로 만든다.
- iii) 어간의 말음이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이 아닌 명사는 *-e*로 복수를 만든다.
- iv) 어간의 말음이 축약된 음절로 되어 있는 여성이 아닌 명사는 복수표지가 없다.
- v) 전형적이 아닌 모든 명사는 *-s* 복수형태를 취한다.
- vi) 복수는 변음된다.

분덜리히는 이러한 규칙을 “확고한 사실”로 본다(Wunderlich 1999a: 8). 물론 어휘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Dorn, Graf, Mast*와 같이 어간의 말음이 자음인 일련의 여성이 아닌 명사도 *-e* 대신에 *-n*으로 복수를 만들며(규칙 iii)에 대한 예외), *Finsternis, Bedrängnis, Mühsal, Labsal*과 같은 몇몇 여성명사는 복수에 변음하지도 않으며 *-n* 접미사가 붙지도 않는다(규칙 ii) 또는 vi)에 대한 예외).

‘축약된 마지막 음절’의 제약조건과 관련하여 분덜리히는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 공명음의 음절로 끝나는 여성명사(*Gabel, Mutter* ‘암나사’)에 왜 /n/이 붙여져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이고 있다(Wunderlich 1999a: 3). 그밖에 같은 남성명사로서 *Zettel, Zirkel*과 음운구조가 유사한 *Muskel*은 -n 복수형을 선택한다든지, *Motor, Professor*는 소위 혼합변화를 하지만, *Korridor, Tumor*는 규칙적으로 -n 유형을 취한다는 것은 특이하다.

복수형을 습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과정이므로<sup>17)</sup> 개별적인 복수형을 그저 암기할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자질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복수형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머릿속에서 규칙에 따라 낱말의 형태를 만들어 낸다고 하기보다는 저장되어 있는 낱말을 꺼내어 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아직 습득하지 못한 낱말들은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Becker 1994: 45f.).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배우는 이로서는 모든 어휘(어형변화의 형태)를 완전히 구사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Buch*의 복수가 *Bücher*라는 것은 어간이나 단수형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낱말의 어형변화 방식에 대한 본보기를 모를 때에는 말하는 이는 옳은 형태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Bücher*라는 낱말을 아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에 그 낱말을 사용할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수형태 *Buch*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 복수형태를 만들 것이다. 이때 *Bücher*라는 형태나 *Buche* 또는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vgl. Becker 1994: 47).

복수형을 인지하는 것도 단수형을 알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복수형태를 옳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사의 단수형태와 성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형태는 원래 굴절부류가 서로 다른 단수형태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Hunde - Runde, Hallen - Ballen, Löcher - Köcher, Hüte - Tüte*.

-Ø 복수유형을 모르고서는 *Kuchen, Schatten*을 복수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Stück : Stücke*의 관계를 가정하여 *Mücke*를 복수형인 것으로 착각하여 \**Mück*이라는 단수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변음+ -er’라

17) 형태론적인 규칙은 동일한 관계에 있는 낱말들의 쌍으로부터 추상화된다. vgl. Becker 1994: 47. 예컨대 *Buch - Bücher, Haus - Häuser, Dach - Dächer* 등. 조어규칙과도 같은 이러한 유형의 규칙은 유추라는 비례의 개념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 *Haus : Häuser = Buch : X*

는 복수를 만드는 규칙을 얹으로써 *Bücher*라는 형태에 *Buch*라는 단수형이 모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vgl. Wegener 1999: 5; Sonnenstuhl-Henning 2003: 94).

여하튼 복수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표의 규칙적인’, 그리고 ‘유표의 규칙적인’ 복수형에 대한 규칙을 터득하고,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 불규칙적인 복수형을 익히면 될 것이다. 물론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배우는 이에게 명사의 성을 파악하는 것은 —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 늘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 4. 제약조건에 의한 복수형의 분석

이제 독일어의 복수체계는 형태론상의 제약과 음절음운론상의 제약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최적성이론으로 부분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 이론에서 가정되고 있는 것은 특정한 (굴절)형태를 만드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제약들이 위반될 수 있으며, 그 제약들 간에는 위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독일어의 복수형태에는 어떠한 제약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위계에 있어서 서로 어떠한 서열에 있느냐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나아가 낱말에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 제약의 위계가 바뀔 수 있는가 하는 물음도 나온다.

이에 필자는 우선 베게너의 분석에서 상정된 제약들을 살펴보기로 한다(vgl. Wegener 1999: 12ff.). 베게너는 복수형태는 단수 어간의 자질에서부터 유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여기서는 굴절부류와 성의 소속이 중요한 요인임을 전제하고 있다.

복수형이 성의 부류와 굴절부류에 종속되는 데 대해서 먼저 성의 부류 GK, 굴절부류 FK의 제약이 가정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GK: 복수형태는 단수 어간의 성의 부류와 일치한다.

FK: 복수형태는 단수 어간의 굴절부류와 일치한다.

굴절부류와 성의 부류를 가지고서 복수에 대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다. *Gabel*은 *Gabeln*이 되지만, *Löffel*, *Messer*는 왜 같은 형태로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은 “FK”의 제약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여성명사 *Jagd*와 *Amsel*의 복수가  $-(e)n$ 으로 끝나는 것은 “GK”의 제약 때문이다. 특히 단음절 명사에 있어서 복수형과 음성적인 구조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은 아마도 문법적인 성과 연관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운이 같은 계열에 속하는 낱말들도 예외를 보인다: *Blatt*, *Rad*, *Bad* 등은 “ä”와 “-er”로 복수형이 되고, *Kind* - *Kinder*, *Rind* - *Rinder*이지만 *Wind* - *Winde*이며, *Haus* - *Häuser*이지만 *Maus* - *Mäuse*이다. 여기에 다시금 명사의 성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

복수형은 대체로 성의 부류와 굴절부류로 설명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제약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기준들은 말음과 음절 수 등의 단수 어간의 자질에서 나오며 다음과 같은 제약을 들 수 있다:

FUSS: 복수형은 무표의 음보를 실현한다.

이 제약은 약음삭제를 하게 하는 원리로 간주될 수 있다. 복수형은 강약격 Trochäus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약격은 독일어에 있어서 분명히 전범이 되는 음보다.<sup>18)</sup> 이로써  $-n$ 과  $-en$ 의 분포도 설명된다. 복수형태에서 강약격은 강약약격 Daktylus보다 선호된다. 단음절의 어간은 그 복수형태에서 강약격(예: *Hunde*)을 이룬다. 2음절의 토박이 낱말의 어간은 약음이 삭제되고서  $-n$  또는  $-Ø$ (*Ampeln*, *Engel*)로 복수가 되거나 *Auto-s*와 같은  $-s$  복수가 된다.

약음삭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e$ 가 있는 무거운 음절에 뒤따르거나 다른 모음을 갖는 음절로 끝날 때이며, 복수에서 강약약격이 된다: *Abende*, *Gegenden*. *Nachfahren*, *Leichname*, *Bräutigame*; *Nachtigallen* vs. *Kartoffeln*

18) “형태론상으로 단순한 명사의 복수형태는 강약격으로 끝난다.”(Eisenberg 1998/2000: 159)

(Wegener 1999: 4). 자음으로 끝나는 접미사를 갖는 파생어도 강약약격이다: *Freiheiten, Zeitungen, Freundinnen* (Wegener 1999: 11). 강약격의 제약을 가정함으로써 약음삭제로 설명될 수 있는 *Nachbarn, Konsuln*과 같은 경우도 파악되며, 몇몇의 경우에는 강세가 옮겨져 강약격으로 된다: *Dok'toren, Profes'soren* < 'Doktor, Professor. 이 경우 복수에서 강세가 없는 음절을 앞에 두고서 강약격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Forelle, Bazillus*와 같이 끝에서 두 번째의 음절에 강세가 있을 때에는 말음의 음절을 떼어내고서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 첫 음절 다음에 강약격이 된다: *Forellen, Bazillen*.

오늘날의 독일어에서는 '체제적합성'의 원리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수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의 복수형에서 음운론상의 규칙에 따라 /ə/가 탈락되는 경우에는 대립되는 관사의 형태로써 단수와 복수가 구별되지만(예: *der Lehrer* vs. *die Lehrer*), 여성명사에는 -n을 붙여야 한다(예: *die Leiter-n, die Gabel-n*). 그밖에 아래와 같은 제약들이 더 있다:

DIST: 복수형태는 단수형태와 분명히 구분된다.

MAX: 각 분절은 삭제되지 않는다.

DEP: 각 분절은 확장되지 않는다.

IDENT(F): 대응되는 분절은 자질 F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

F= V(핵모음), K(말음의 자음), μ(형태소 (경계))

-HOM: 동음이의어는 회피되어야 한다.

NC: 마지막 음절은 무성자음이 중첩되어 끝나서는 안 된다.

PAR: 계열적인 굴절형태소만 복수접미사로 사용된다.

위에서 "NC"는 "No Coda"의 약자로서 대강 위에 적힌 의미로 파악되며, "PAR"란 원래 독일어의 격어미가 아닌 -ta와 같은 특수한 복수접미사는 사용될 수 없음을 말한다. 베게너는 이러한 제약들이 함께 관련되는 것을 아래와 같은 간단한 예로 제시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오래 된 토박이 낱말인 *Vogel*의 경우에는 변음된 형태가 가장 적합한 형태로 드러난다"(Wegener 1999: 15). 그 형태는 분명하여, 성의 부류와 굴절부류

를 나타내며, 강약격을 이루고, 마지막 음절에 자음이 중첩되어 있지 않다 (“NC”의 제약). 물론 분명한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충실성의 제약의 한 가지를 위반하여 간모음이 바뀐다.

“상대적으로 오래 되지 않은 낱말인 *Onkel*의 경우에는 모음이 바뀌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Ø 복수형태로 된다. 이 낱말은 마지막 음절이 약음인데다 남성이어서 토박이 낱말에서와 같은 분명한 복수형태는 불가능하다”(Wegener 1999: 15). -Ø 복수형태는 강약격으로는 적절하며 “FK”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DIST”는 위반하고 있으며, 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베제너의 예시에서 보면, 해당 낱말에 따라 제약의 위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Vogel에서는 “NC”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계에 있으며, *Onkel*에서는 “IDENT”가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DIST”는 분명히 가장 우위에 있는 제약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개는 “FUSS”와 “FK”가 우위에 있다. 그러나 “DIST”는 “IDENT/V”보다는 앞서 있다. 분명한 복수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후자의 제약은 변음으로 인하여 위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NC”의 위반은 드물다.

여기에서 표준독일어의 규칙적인 복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약의 위계를 유도할 수 있다(Wegener 1999: 15):

FK/GK, FUSS >> NC >> DIST, IDENT

많은 행위자 명사 *Fahrer*, *Besucher*와 같은 파생어의 -Ø 복수형태에서는 기저동사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 투명성의 제약(“IDENT/V”)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IDENT”는 여기서 *Hut*, *Stock*, *Bach*와 같은 단순어에 있어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어휘화된, 옛날의 동사 파생어들은 대부분 변음되고 있다: *Brände*, *Bünde*, *Gänge*, *Kämpfe*, *Käufe*, *Schläge*, *Schlüsse*, *Sprüche*, *Sprünge*.

복수형태의 음절구조를 보면 단수 어간과 복수접미사 사이에 형태소의 경계가 없어져 음절의 경계가 밀려나게 된다: *Hund* - *Hunde*, *Kind* - *Kinder*, *Poet* - *Poeten*. 이로 인해 단수와 복수의 투명성은 약화된다. 이러한 것은 신조어의 복수를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복수접미사에 약음삭제가 되는 경우의 명사에서와 같이(예: *Engel*, *Fens-*

ter),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높은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명사의 복수형은 형태론상의 구조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그 복수형은 단수형태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약음절을 가진 복수형은 이러한 관점에서 경계에 있는 경우”라고 아이젠베르크는 말하고 있다(Eisenberg 1998/2000: 157).

아래의 ‘도표 3’은 낱말 *Wort*를 예로 들어 어떻게 하여 *Wörter*라는 형태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Wort N	FUSS	FK	GK	NC	PAR	DIST	IDENT			DEP
							V	K	μ	
Wort	*					**!				
→Wor.te			*						*	*
⇒Wörter						!	*		*	*
Wor.ten		*	*						*	*
Wör.te			*				*		*	*
Worts	*	*	*	*						*

도표 3: vgl. Wegener (1999: 17)

음운변천의 관점에서 보면 *Worte*의 말음의 *-e*는 탈락되고 *-Ø* 복수가 생긴다.<sup>19)</sup> 이것은 “DIST”의 원리를 위반하여 상보적으로 *-er*로 대체된다.

19) *-e*와 *-er* 간의 동요는 우선 옛날의 *-e*가 새로 생긴 *-er* 형태로 인하여 밀려났다가 다시 말음의 *-e*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설명된다. 언어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나선형 모양의 진전은 상호 지양하는 원리에 대한 보기이다. 부분적으로 *-er* 형태는 남부 독일어의 방언에 남아 있고, 부분적으로는 *Worte/Wörter*, *Schilde/Schilder*, *Bände/Bänder*에서처럼 서로 의미를 달리하며 존속하고 있다. vgl. Wegener 1999: 16.

복수형태 *Wörter*는, *Vögel*이 남성명사의 경우에 그러한 것처럼, 중성명사에서의 제약조건을 역시 아주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중성명사이므로 *-er* 복수에 변음이 따른다. 이 형태는 아주 분명하며 “FUSS”와 “FK”의 제약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Worte*와는 달리 “GK”의 제약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명확한 복수형태 *Wörter*는 “IDENT/V”를 위반하고 있지만, 빈도가 높은 낱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Wörter*에는 *Vögel*과 (거의) 같은 위계가 설정된다.

단수형은 같으나 복수형이 두 가지 형태인 낱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위계를 설정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vgl. Wegener 1999: 21):

*Wörter*: FUSS, GK > FK, DIST, NC >> IDENT/μ IDENT/V

*Worte*: FUSS, FK, IDENT/V, NC >> DIST >> IDENT/μ

분달리히는 고려 대상이 되는 복수형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제약들을 내놓고 있다(vgl. Wunderlich 1999a: 13):

- ReducFinSyll: 명사의 복수는 단축된 음절로 끝난다.
- Max(cor)<sub>M</sub>: 유표의 범주에서 변음이 나타난다.
- S-Plur: 명사의 복수는 *-s*로 끝난다.
- N-Plur: 명사의 복수는 *-n*으로 끝난다.
- NoRed(undancy): 복수는 한 번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MarkPlur: 복수형은 단수의 형태와 달라야 한다.
- Dep(mora): 출력의 음률 단위는 입력의 음률 단위와 일치해야 한다.
- NoAffix: 접사를 부가하지 말아야 한다.

위에 든 제약조건들 가운데 “Max(cor)<sub>M</sub>”에 대한 개념 정의는 원문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나, 위에 적힌 의미로 볼 수 있다. 분달리히는 상이한 복수형태를 기술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음률상의 적정 조건 이외에 단지 두 가지의 복수접미사 *-s*와 *-n*을 가정하고 있다.

분달리히는 복수체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여덟 가지의 제약의 바탕 위에서 최적성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분석에서도 ‘축약된 마지막 음절’은 높은 서열에 있다. 모음으로 끝나는 모든 여성명사

는 음절을 첨가하지 않아야 하는 “Dep(mora)”의 제약을 지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n$  복수는 이 제약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  $-s$  복수도 “Dep(mora)”를 결코 위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는 *Skeletts*라는 형태는 *Skelette*라는 형태보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s$  복수는  $-(e)$  복수유형의 모든 명사에 대해 “표준값을 갖는 복수로서 효과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분덜리히는 말하고 있다(Wunderlich 1999a: 15).

복수형태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명사( $-\emptyset$  복수유형)는 ‘복수형을 표시하라’는 제약(“MarkPlur”)을 어기고 있다고 간주된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더라도 적절한 형태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제약은 서로 같은 위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분덜리히는 여러 제약들을 적절하게 배열하여<sup>20)</sup> *Mutter, Mütter, Muttern, Müttern, Mütters* 그리고 *Hand, Händ, Hände, Händs, Händen*과 같은 형태 가운데 여성명사에는 어찌하여 변음으로 표시되는 복수형이  $-n$ 으로 표시되는 복수형보다 선호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vgl. Wunderlich 1999a: 14).

다시 말하여 *Mutter*의 예에서는 변음한다는 제약이 선택되고,  $-n$ 와  $-s$ 의 복수형태는 배제된다. 마찬가지로 *Hand*의 예에서는  $-e$  복수형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Assel, Asseln, Assels*의 예에서는 변음을 하지 않는 여성명사는  $-n$  복수형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난다(vgl. Wunderlich 1999a: 14).

그러나 여성명사에서 변음이 되는 복수형이  $-n$ 을 취하는 복수형에 대하여 우위에 있다는 가정은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어미  $-s$ 와  $-e$  사이에 동요할 수 있는 복수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모호한 점이 없잖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분덜리히의 복수형에 대한 분석(Wunderlich 1999a)은 독일어의 복수체계를 총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많은 예외규정으로 기술될 수 있었던 이전의 다른 학자들의 분석에 비하여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최적성이론에 기초한 그의 설명으로 복수형의 여러 형태소가 서로 어떻게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제약의 위계상의 변동은 복수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20) 배열순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vgl. Wunderlich 1999a: 14.

NoRed > Max(cor)<sub>M</sub> > ReducFinSyl >  $n$ -Pl. >  $s$ -Pl. > MarkPlur



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불규칙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유형인 -s 복수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 5. -s 복수

-s 복수의 특별한 성격은<sup>21)</sup> -s 복수의 사용을 탐탁치 않게 여겼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오용이라고까지 지적한 학자가 192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써도 알 수 있다(s. Sonnenstuhl-Henning 2003: 94). 이미 18, 19세기에 -s 복수는 독일어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지만, 프랑스어나 영어로부터, 혹은 저지독일어(예: *Reling-s*, *Wrack-s*)로부터 차용된 형태로 간주되었다. -s 복수는 언제부터 표준값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점차로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오늘날의 독일어의 발전경향을 통해서도 확실히 볼 수 있다.<sup>22)</sup>

-s 복수는 근래의 연구문헌에서 특별한 범주로 취급되고 있다. 의미가 없는 인위적으로 만든 낱말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도 -s 복수는, 실제 어휘에서는 빈도가 낮지만 높은 비율로 일반화되었다. 컴퓨터언어학에 의한 분석에 있어서도 -s 복수는 어떤 명사가 그밖의 다른 어휘상의 특성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나 나타나는 표준(기본)값의 경우로 상정되고 있다. 분달리히는 “-s는 비전형적인 명사에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지만(Wunderlich 1999b: 1044), -s 복수는 그가 제안한 상속 수형도의 맨 위의 교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때, 그것은 역시 전체적인 체계에 있어서 기본값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복수체계에 대한 분석들을 살펴보면 독일어의 복수체계에 있어서 일련의 규칙성이 확인될 수 있지만, 어느 규칙도 일반적인 표준값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

21) 비이제는 -s 복수를 ‘특수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die Kennzeichnung (-s-Pl.) ist besonders markant.” (Wiese 2000: 151).

22) 1898년도에 나온 사전을 가지고 한 무그단의 통계와 1977에 나온 바리히 Wahrig 사전을 가지고 한 파블로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s 복수의 유형 빈도는 남성·중성명사에서는 5,74%에서 16,3%로, 여성명사에서는 0,3%에서 1,7%로 증가하였고, 구현 빈도는 남성·중성명사에 있어서는 1,87%에서 2,7%로, 여성명사에서는 0,05%에서 0,2%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vgl. Wegener 1999: 52.

을 알 수 있다. 예외가 없는 유일한 규칙(‘-e로 끝나는 여성명사는 -n을 갖는 복수를 만든다’)도 그 부류에서의 특수한 규칙일뿐 일반적인 표준값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 규칙은 어간의 말음이 약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래 “표준값이란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없을 때는 언제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Sonnenstuhl-Henning 2003: 96).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표준값으로 간주되는 독일어의 유일한 복수형태는 -s 복수형태라고 할 것이다. -s 복수는 그 (복수형의) 바탕이 되는 낱말의 어떠한 범주상의 특성에 매여 있지 않아 사실상의 표준값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여러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 동화되지 않은 외래어: *Points, Gags, Details, Kiosks, Ponys*.
- 의성어: *die Kuckucks, die Wauwaus, die Uhus*.
- 시험적으로 만든 무의미한 낱말: *Pnefs, Knaucks, Kaftis, Ziros*.
- 인명: *Helmut's, Schmieds, Vogels*.
- 인명에서 따온 종류명: *Fausts, Hamlets*.
- 지명: *die Deutschlands, die beiden Berlins*.
- 제품명: *Kadetts, Golfs*.
- 원래는 구였으나 단축된 낱말: *Dreikäsehochs*.
- 원래 명사가 아닌 품사의 명사화: *Wenns und Abers, die Achs*.
- 약어(단축어): *Unis, GmbHs, LKWs, Loks, Infos, Trafos*.
- -i, -o로 끝나는 특수한 조어: *Fundis, Spontis, Hirnis, Schlaffis, Schwulis, Profis, Studis, Erstis, Heteros, Stinos*.
- 인용형태: *drei "Frau"s*. (vgl. Sonnenstuhl-Henning 2003: 96)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s 복수는 특히 외래어인 특수한 조어에서 나오므로 그야말로 비전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특이하게도 -s 복수형태가 되게 하는 접미사는 없다. 이러한 사실은 -s 복수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사실상 비전형적인 명사에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성어에 있어서 -s 복수가 되는 까닭은 음절의 성격을 갖는 복수형태로는 음절의 경계가 밀려나게 되고, 변음을 하게 되면 의성어가 안 되기 때문이다:

\**Kuckucke*, \**Kuckücke*. 이와 비슷하게 고유명사에 있어서도 충실성의 제약이 중요하므로 인명에는 \**Schmiede*, \**die Vögel*이 아니라, *die Schmieds*, *die Vogels*인 것이다. 지명에서도 이와 같다.

다른 한편으로 -s 복수는 어떠한 음운상의 환경에도 매여 있지 않다. 말하자면, 바탕이 되는 낱말의 음운상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명사만 복수형이 되는 데에 음조상의 조건에 매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 복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뒤에 나온다(vgl. Sonnenstuhl-Henning 2003: 96):

- 완전모음: *Mamas, Opas, Echos, Staus, Autos, Muttis*.
- 자음: *Chefs, Streiks, Tips, Festivals, Akkordeons, Schals*.
- 강세가 주어지는 음절: *Karussells, Kartons, Resümees, Koteletts*.
-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 음절: *Apartments*.

완전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독일어에는 드물기에, 그러한 명사의 복수형은 비전형적인 것이다. -s 복수가 쓰이는 이유는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하여서이다: \**Kamera.en, Kameras*, \**Oma.en, \*Auto.e*.

이밖에도 -s 복수를 표준값으로 보려 하는 데는 다음의 이유가 있다:

첫째, -s 복수는 언어습득에 있어서 흔히 높은 비율로 일반화된다. 이러한 일반화는 저장된 형태가 사용될 수 없으면, -s 복수는 언제나 사용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둘째, -s 복수는 다른 복수형태소와는 달리 합성어의 접합요소로 나올 수 없다: \**Autosberg, \*Kartonsfabrik*.

이러한 관찰은 다른 복수형태와는 달리 -s 복수는 규칙에 기초해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한다(vgl. Sonnenstuhl-Henning 2003: 97). 이와 같은 이유에서 -s 복수를 독일어의 복수체계에 있어서 표준값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필자는 베게너(vgl. Wegener 1999: 34f.)에 기대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신조어와 고유명사, 외래어에 분명히 -s 복수가 선호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s 복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신조어, 고유명사 등은 음운상으로 특

이하므로 의성어에 있어서처럼 충실성의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s 복수는 이러한 낱말에 아주 적합하여서 -s 복수가 선호되고 있을 따름이다.

유표의 관점에서 복수형을 볼 때, *Villen*(단수: *die Villa*)과 같은 형태는 규칙에 위반되는 것 같다. 마지막 음절이 완전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다른 유형의 복수형이 나오기도 한다: *das Konto, die Pizza, das Risiko, der Saldo*<sup>23)</sup>, *die Mensa, der AStA, die Datscha*의 경우에는 -en(-o, -a)가 탈락되고서 -s의 형태 사이에서 유동적이다. 이러한 명사에서는 말음의 -a 약화 내지는 말음의 모음이 삭제되거나 복수어미의 약음에 말음이 동화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Villaen* → *Villen*, \**Kontoen* → *Konten*. 적어도 여기에서 여성명사는 -s 복수 대신에 규칙적인 -en 복수표지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이러한 명사는 독일어의 체계에 적합하게 복수형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낱말이 독일어에 동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명사의 복수형은(그 가운데 여성명사에 관한 한) 무표의 규칙적인 명사에 든다(vgl. Wegener 1995a: 29).

이와 같이 외래어의 복수를 만드는 데에는 -s 복수 이외에 다른 방식도 역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vgl. Clahsen 1999: 1021).

- i) -n: 약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와 남성명사에서: *der Coyote* → *Coyote-n*, *die Farm* → *Farm-en*, *die Pizza* → *Pizz-en/Pizza-s*
- ii) -e: 치찰음으로 끝나는 남성명사와 여성명사에서: *der Bus* → *Buss-e*, *der Boss* → *Boss-e*, *der Fax* → *Fax-e*, *das Oval* → *Oval-e*, *der Radar* → *Radar-e/ Radar-s*.
- iii) -"e: *der Mops* → *Möpse*, *Chöre*, *Kanäle*, *Generäle/General-e*, *Admiräle/Admiral-e*, *Märsche*, *Paläste*.
- iv) -∅: 약음 + n/r/l로 끝나는 비여성명사에서: *der Laser* → *Laser*, *der Computer* → *Computer*, *der Gangster* → *Gangster*.

23) *Cello, Porto*의 경우에는 -s, -en 이외에 -i의 복수형태(*Saldi, Celli, Porti*)를 보이기도 한다.

2) -s 복수의 낮은 빈도를 들 수 있다. -s 복수에 대한 최근의 분석에서도 총어휘 가운데 -s 복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형으로는 4,1%(기본어만 계수했을 때는 7,4%), 구현으로는 1,9%에 불과하다(s. Sonnenstuhl-Henning 2003: 83). -s 복수의 특별한 위치는 그것이 문법적인 성과는 무관하게 선택되는 점에 있다고 하지만, -s 복수에서 여성명사의 수는 아주 적다(원래 굴절형태소 -s 는 남성·중성명사의 격어미이지만). 파블로프의 통계에서도 -s 복수의 분포는 여성명사 가운데 유형으로는 1,7%, 구현으로는 0,2%에 이를 뿐이다(s. Pavlov 1995: 45-48).

따라서 -s 로 끝나는 형태 역시 강하게 성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 복수는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에 대한 전형적인 복수형태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여성명사에 있어서만은 예외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베게너는 말한다(vgl. Wegener 1999: 8, 34f.).

-s 복수의 구현빈도가 낮은 것은 -s 복수의 특수한 사용 영역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er 이외의 모든 복수 변이형태도 (비중은 다르지만) 모든 성에 나오므로, -s 복수가 모든 성에 다 나온다는 점을 -s 복수의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3) -s 복수도 음운상으로 제약을 받는다. 약음의 복수형태소가 약음의 음절에 이어질 수 없는 것처럼, -s 복수는 -s 또는 -z에 연이어 나올 수 없다: \*Busses, \*Kekse, \*Status-Ø, \*Filze, \*Witze. 인명에서도 *die beiden Klaus*, \*Klause; *Lutz*, \*Lütze, \*Lütze.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음이 /s/로 끝나는 경우 복수는 -e로 된다: *Faxe*, *DAXe*, *Felixe*.

4) 제품명도 보통명사처럼 쓰여 -Ø 복수형으로도 표시된다: *die Opel/Opels*, *die Duden*.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규칙적인 복수형이 사용되기도 한다: *die drei Sterne*, *die Zeiten*(‘잡지’), *die Holzmänner*(회사원으로서). (vgl. Wegener 1999: 23).

5) 역사문법이나 옛날의 사전을 살펴 보면, (e)로부터 -s로의 전이도 없지

않지만, -s로부터 -(e)나 -(e)n으로의 전이는 더러 많음을 알 수 있다. 외래어가 독일어로 동화되는 데에는 -s와 원래 (독일어 복수)의 형태는 상보적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특정한 제약을 따른다.

6) 구가 하나의 낱말이 된 경우에도 오히려 -e 또는 -∅ 복수형이 쓰인다: *die Rührmichnichtan-∅, Vergissmeinnicht(e), Tunichtgute*. 그러나 헤르만 파울은 *Vergissmeinnicht, Tunichtgut*를 -s 복수로 보고 있다(Paul 1968: 131).

7) 특히 -s와 -e 사이에 동요가 있다: *Balkons - Balkone, Lifts - Lifte, Karussells - Karusselle, Staus - Staue, Parks - Parke*(동부에서). *Kerle - Kerls*(북부에서). 강세가 오는 음절 뒤의 경우에도 -s 또는 -e 형태가 나온다: *Koteletts/Kotelette, Apertifs/Apertife*.

이것은 강약격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ifts > 'Lifte, Bal'kons > Bal'kone

8) 클라젠 Clahsen 등의 언어습득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s 복수는 사실상 과도하게 일반화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낯선 낱말들에 대하여 다른 복수형태보다도 -s 접사로 어형변화를 시키려는 것 같다”(Clahsen 1999: 1008)는 견해에 대해서, 드레슬러 Dressler는 오스트리아의 어린이들은 -s 규칙에 앞서서 -n 과 -e 복수를 습득하며, 이 사실은 다른 독일어권의 어린이들에게도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vgl. Clahsen 1999: 1021). 예컨대 베게너의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복수형태소의 일반화의 서열은 “-(e)n > -e > -s > 변음 > -er”로 나와 있다(vgl. Wegener 1995b: 201).

9) 음운론상의 지식이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의미가 없는 낱말들은 신조어와 같기 때문에, -s 복수가 선호될 수 있을 것이다. 신조어에 대한 반응을 시험하는 심리언어학적인 실험에서 피험자는 신조어를 두고서 비전형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테스트에서 -s 복수가 특별히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

반적으로 성에 따른 규칙적인 복수가 분명히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테스트는 -s는 곧 표준값이라는 논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된 복수규칙에 대하여 언어사용자의 언어의식의 일면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s 복수가 독일어의 표준값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항의 낱말들은 변별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실험에서 -s 복수의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명사는 문장구조상으로 명사의 자리에 있을 뿐, 그 이외에서는 의미를 갖는 ‘명사’+[N]로서의 자질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vgl. Wunderlich 1999b: 1044).

전체적으로 보아 클라젠 등의 학자들이 -s 복수가 표준값임을 논증하기 위해 실시한 어떠한 테스트도 -s 복수가 독일어의 규정된 유일한 복수라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vgl. Wegener 1999: 35). 일반적으로 표준값이란 영어에서의 복수 -s처럼, 경합되는 여러 형태소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 -s 복수를 ‘비상(용 예비) 복수’로 지목하는 것도 충분하지가 않다. 많은 경우에 음운상의 견지에서 규칙적인 복수형이 쓰이고 있다. 말하자면 -s 복수는 음운구조(의성어)나 특수한 영역(고유명사)의 경우를 나타내는 명사에 있어서 음운이나 형태소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기능적인’ 복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Wegener 1999: 23). “-s 복수가 할당되는 데에는 충분한 음운상의 조건과 구조적인 핵을 본다”고 아이젠베르크도 말하고 있다(Eisenberg 1998/2000: 158f.).

-e 복수가 -s 복수로 (또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전환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vgl. Wunderlich 1999a: 17), 한편으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비상용 예비’ 복수로서의 -s 복수는 퇴조하고, 오히려 외래어가 독일어 명사의 굴절체계(규범)에 동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s 복수를 독일어의 복수체계에서 표준값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s 복수는 “유표의 영역에서의 무표의 복수형태”라고 제한적으로 지칭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vgl. Eisenberg 1998/2000: 159).

## 6. 결론

독일어 명사의 굴절체계는 굴절부류와 문법적인 성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독일어의 명사굴절은 체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 준다. 복수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독일어의 복수체계에 대한 주요 규칙들을 세울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굴절부류에 부합되는 무표의, 또는 유표의 ‘규칙적인’ 복수형태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에 예외는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독일어 명사의 복수형에는 여러 관점(의미, 지역, 언어나 등)에서의 변이형이 있기도 하다.

변음복수(-*e*, -*er*)에서 변음은 보다 분명한, ‘강화된’ 복수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겠으나, 그 규칙성은 말하기 어렵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낱말의 형태라고 할지라도 -*er* 복수유형과 같이 그 구현 빈도가 높을 경우에는 습득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며, 불규칙적인 낱말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제약에 기초한 분석을 통하여 복수의 변이형태가 서로 어떻게 경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베게너의 분석에서는 예컨대 음률에 관한 제약은 위계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 분덜리히의 분석에 제시된 제약조건들과 그 위계는 베게너가 마련한 기준과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서로 다른 제약을 그 위계에 따라 고려하여 마침내 어떠한 적합한 형태가 선택되는가 하는 것은 낱말의 어휘상의 특성으로부터 나온다. 적절한 형태의 복수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문법적인 규칙과 복잡한 평가단계를 거친다고 본다.

독일어 명사의 복수체계에서 밝혀지는 것은 형태소에 기초해 있는 체계가 음조상의 제약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사실은 비전형적인 명사에 붙는 복수접미사가 전형적인 명사에 널리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s* 복수는 독일어 명사체계에 전반적으로 표준값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어 명사의 복수체계는 꽤 복합적인 것 같지만, 대체로 분명한 원리들을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복수형의 습득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 본다.



끝으로 오늘날의 독일어의 형태론에 대한 기술에서도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홍우평 (1995): 독일어 복수명사화의 (불)규칙성에 대하여. 『독일문학』 56. S. 353-368.
- Augst, Gerhard (1979): Neuere Forschungen zur Substantivflexion.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7, S. 220-232.
- Becker, Thomas (1994): Die Erklärung von Sprachwandel durch Sprachverwendung am Beispiel der deutschen Substantivflexion. In: Köpcke, Klaus-Michael (Hrsg.): *Funktionale Untersuchungen zur deutschen Nominal- und Verbmorphologie*. Tübingen. S. 45-64.
- Bittner, Dagmar (1994): Die Bedeutung der Genusklassifikation für die Organisation der deutschen Substantivflexion. In: Köpcke, Klaus-Michael (Hrsg.): *Funktionale Untersuchungen zur deutschen Nominal- und Verbmorphologie*. Tübingen. S. 65-80.
- Clahsen, Harald (1999): Lexical entries and rules of language; A multidisciplinary study of German inflection. I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2, S. 991-1060.
- Eisenberg, Peter (1998/2000): *Grundriss der deutschen Grammatik*. Bd. 1. *Das Wort*. Stuttgart/Weimar S. 152ff.
- Harnisch, Rüdiger (1990): Die Pluralbildung des Substantivs im Deutschen - ein Fall von Grundflexion? In: *Linguistische Studien (Reihe A)* 208, S. 37-55.
- \_\_\_\_\_ (1994): Stammerweiterung im Singular - Stammflexion im Plural. Zum Bautyp der deutschen Substantivdeklinaton. In: Köpcke, Klaus-Michael (Hrsg.): *Funktionale Untersuchungen zur deutschen Nominal- und Verbmorphologie*. Tübingen S. 97-114.
- Köpcke, Klaus-Michael (1987): Die Beherrschung der deutschen Pluralmorphologie durch muttersprachliche Sprecher und L2-Lerner mit englischer Muttersprache: Ein Vergleich. In: *Linguistische Berichte* 107, S. 23-43.

- \_\_\_\_\_ (1988): Schemas in German Plural Formation. In: *Lingua* 74, S. 303-335.
- \_\_\_\_\_ (1994): Zur Rolle von Schmata bei der Pluralbildung monosyllabischer Maskulina. In: Köpcke, Klaus-Michael(Hrsg.): *Funktionale Untersuchungen zur deutschen Nominal- und Verbalmorphologie*. Tübingen. S. 81-96.
- \_\_\_\_\_ (2000): Starkes, Schwaches und Gemischtes in der Substantivflexion des Deutschen. Was weiß der Sprecher über Deklinationsparadigmen? In: Thieroff, Rolf/Tamrat, Matthias/Fuhrhop, Nanna/Teuber, Oliver (Hrsg.): *Deutsche Grammatik in Theorie und Praxis*. S. 155-170.
- Mugdan, Joachim (1977): *Flexionsmorphologie und Psycholinguistik*. Tübingen.
- Paul, Hermann (1968): *Deutsche Grammatik*. Bd. II, Teil III, Flexionslehre. Nachdruck der 1. Aufl. von 1917. Tübingen.
- Pavlov, Vladimir (1995): *Die Deklination der Substantive im Deutschen. Synchronie und Diachronie*. Frankfurt a.M. u.a.
- Russ, Charles V.J. (1989): Die Pluralbildung im Deutschen.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7, S. 58-67.
- Sonnenstuhl-Henning, Ingrid (2003): *Deutsche Plurale im mentalen Lexikon*. Tübingen.
- Wegener, Heide (1995a): *Die Nominalflexion des Deutschen - verstanden als Lerngegenstand*. Tübingen.
- \_\_\_\_\_ (1995b): Generative Morphologie und Deutsch als Fremd- und Zweitsprache. In: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21, S. 185-208.
- \_\_\_\_\_ (1999): Die Pluralbildung im Deutschen - ein Versuch im Rahmen der Optimalitätstheorie. In: *Linguistik online* 4, 3/99, ([http://viadrina.euw-frankfurt-o.de/~wjournal/3\\_99/wegener.html](http://viadrina.euw-frankfurt-o.de/~wjournal/3_99/wegener.html)).
- Wiese, Bernd (2000): Warum Flexionsklassen? Über die deutsche Substantivdeklination. In: Thieroff, Rolf/Tamrat, Matthias/Fuhrhop, Nanna/Teuber, Oliver(Hrsg.): *Deutsche Grammatik in Theorie und Praxis*. Tübingen. S. 139-154.
- Wunderlich, Dieter (1999a): *German noun plural reconsidered*. 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Düsseldorf: Heinrich-Heine-Universität.
- \_\_\_\_\_ (1999b): German noun plural reconsidered. [Kommentar zu H.

Clahsen, 'Lexical entries and rules of language: A multi-disciplinary study of German infle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2, S. 1044-1045.

Wurzel, Wolfgang Ullrich (1985): Deutsch der Funke zu der Funken: Ein Fall für Natürliche Morphologie. In: Bahner, W./Heidolph, K.-E./Neumann, W./Schildt, J./Teichtmeier, B./Viehweger, D.(Hrsg.): *Forschungen zur deutschen Grammatik - Ergebnisse und Perspektiven* (= *Linguistische Studien* 127). S. 129-146.

\_\_\_\_\_ (1994): Gibt es im Deutschen noch eine einheitliche Substantivflexion? oder: Auf welche Weise ist die deutsche Substantivflexion möglichst angemessen zu erfassen? In: Köpcke, Klaus-Michael (Hrsg.): *Funktionale Untersuchungen zur deutschen Nominal- und Verbalmorphologie*. Tübingen S. 29-44.

## Zusammenfassung

### Das Pluralsystem der Substantive im Deutschen

Kim, Tae-Seong(Pusan National Univ.)

Die Pluralformen *-(e)*, *-(e)n*, *-e*, *-er*, *-s* sind durch die Flexionsklassen determiniert. Basierend auf Genus und prosodischen Eigenschaften werden Pluralklassen unterschieden.

Unter den Substantiven mit konsonantischem Wortauslaut wählen die Feminina den *(e)n*-Plural, die Maskulina und Neutra im Allgemeinen aber den *(e)*-Plural. Es ist also anzunehmen, dass es für jede Flexionsklasse eine vorhersagbare reguläre Pluralbildung gibt.

Die Bildungen mit Umlaut (*-e*)-Pl. und *-er*-Pl.) unterscheiden sich durch die deutlicheren, verstärkten Pl.-Markierungen vom einfachen Typ.

Im Hinblick auf die Regularitäten im Pluralsystem ist festzustellen, dass die Numerusmarkierung bei den Feminina konsequenter ist als bei den Maskulina und Neutra. Im Weiteren spielt bei der Beschreibung der Pluralbildung der Begriff Markiertheit eine große Rolle.

Anschließend wird gezeigt, dass das Pluralsystem nach Beschränkungen aufgebaut ist, die silbenphonologischer und morphologischer Natur sind. Im Rahmen der Optimalitätstheorie werden die Pluralanalysen von Wegener und Wunderlich vorgestellt. Dabei werden die verschiedenartigen Pluralbildungen mithilfe zusammengesetzter Begriffsinstrumentarien, die für die Auswahl einer guten Pluralform ausreichen, vereinfacht dargestellt. Damit bestätigt sich das Pluralsystem im Deutschen als nach klaren Prinzipien geordnet, wenn es auch komplex ist.

Schließlich wird der *s*-Plural als markierte Pluralform ausführlich gezeigt. Die These, der *s*-Plural sei der Defaultwert und einzige reguläre Plural im Deutschen, gilt nur mit Einschränkung, da dieser Typ hauptsächlich in bestimmten Bereichen des Wortschatzes auftritt. Es wäre also angebracht, den *s*-Plural als „unmarkierte Pluralform im markierten Bereich“ anzusehen.

[검색어] 복수형, 명사의 어형변화, 최적성이론  
Pluralbildungen, Substantivflexion, Optimalitätstheorie

김태성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번지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taeskim@pusan.ac.kr